

대만 한국어 학습자 시상(時相) 표현 오류 연구

台灣 中國文化大學 韓文系 副教授 扈貞煥

1. 들어가며

한국어 학습자에게 가장 어려운 영역의 하나가 문법 영역, 그 중에서 시상(時相 tense and aspect) 개념과 관계된 문법 범주일 것이다. 필자는 중국문화대학 한국어문학과에서 한국어습작 과목을 10여 년 가르쳐왔다. 학생들의 오류문은 어휘 및 문법의 여러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시상에 관련된 오류들만을 간추려 설명하고자 한다.

오류의 원인에 대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접근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한 설명을 Brown의 외국어 학습 이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실수(mistake)와 오류(error)에 대한 개념 정리로 오류 연구 방향을 구분시키고 있다. 실수는 학습자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언어 체계가 확립된 상황에서 막연한 추측 혹은 순간적인 말실수를 하게 되는 비체계적인 언어 수행상의 실수들(performance mistakes)로서 자기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모어 사용자 혹은 외국어 학습자에서 두루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른 한편, 오류라고 할 때는 주로 외국어 학습자의 중간 언어적 개념으로 설명되어야 하며, 그것은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성인 문법에 확실하게 어긋나는 학습자 스스로 수정할 수 없는 목표어 수행상의 능력 범위(competence errors)로 구분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¹

Brown은 전이(transfer), 간섭(interference), 그리고 과잉일반화(overgeneralization) 개념을 중심으로 오류 원인을 접근하고 있다.² 전이는 모국어의 간섭 또는 방해에서 발생하는 언어간 전이를 말하며, 간섭은 목표언어 자체의 언어 특성과 미학습에서 발생하는 언어내 전이를 말한다. 간섭은 주로 과잉 일반화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도 오류 원인을 사회언어학적 학습 환경에서 오는 심리학적이며 인지적 혹은 정서적 변인,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표현을 회피하기 위한 의사소통적 전략에서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국어 간섭(언어간 전이)과 목표언어 간섭(언어 내적 전이) 개념만을 참고하여 오류 문제에 접근한다. 언어간 전이는 목표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모국어 간섭 현상이다. 목표어

¹ Brown, H. D.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Fourth edition, Addison Wesley Longman, pp. 217-218.

² 위의 책, pp. 94-96.

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언어 체계에서 습득한 모국어의 경험으로 목표어를 접근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대만 학습자의 모어인 중국어의 간섭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지칭하게 된다. 한편, 언어 내적 전이는 학습자가 목표어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자신의 학습 가설을 의식적으로 시험해 보는 창조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새로운 목표어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전에 경험한 선행 학습을 활용하거나 또는 이에 근거하여 과잉 일반화시키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오류 현상이다. 이것을 목표어 자체 내부에서 오는 부정적인 간섭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시상(時相) 표현: 시간(외적, 내적 구성)과 양태의 결합

- 고립어(孤立語) 대 교착어(膠着語)³ -

대만 학습자의 모어인 중국어는 어법 관계를 나타내는 말(표현)이 형태적으로 변화되어 표현되지 않는 대신에 낱말로 된 말이 독립되어 그 위치에 따라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게 된다.⁴ 따라서 동사, 형용사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당연히 어순과 허사의 운용이 중요시된다.⁵ 한편, 교착어인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변화(형용사, 동사, 서술격조사 ‘이다’) 형태로 문법적 의미적 기능을 나타내게 된다. 즉 기능과 형태 관계가 복잡하게 나타나지만 1:1의 명백한 관계로 구별되는 것이다.⁶ 고립어를 사용하는 학습자가 복잡한 형태에서 개별적인 기능을 가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더 많이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에 학자들은 공감하고 있다.

한국어 문법 영역 중에서 외국인에게 비교적 어렵게 인식되고 있으며, 오류 경향이 돋보이는 것이 시상(時相) 표현이다. 시상은 어떤 사건이나

³ 혹은 첨가어(添加語)라고도 한다.

⁴ 같은 중화권이지만 중국은 간자체(簡字體), 대만은 번자체(繁字體)를 사용한다. 간자체는 문화혁명당시에 문맹을 줄이고, 한문을 세계화 하기 위해서 그리고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416자를 줄인 글자체이고, 번자체는 고대로 부터 내려 오는 한문 그대로를 계승한 것으로 문법상의 문장 구조는 같다. 다만 한국의 사투리처럼 어휘 표현과 어감, 그리고 발음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초등학교를 ‘小學’, 대만은 ‘國小’, 중국에서는 가게문을 닫을 것을 ‘上板(打烊)了’, 대만에서는 ‘打烊了’로 표현한다. 대만인은 말끝에 ‘~喔, ~耶, ~唉, ~的啦’ 등을 붙이는 경향이 있으며, 중국인은 捲舌音 발음이 발달되어 있다.

⁵ 중국어의 허사(虛辭)에는 副詞, 介詞, 連詞, 助詞(結構, 動態, 語氣), 嘆詞, 象聲詞가 있다.

⁶ 예를들면, ‘잡수셨겠다’에서 ‘잡수’는 어휘 높임, ‘시’는 주체높임, ‘었’은 과거시제, ‘겠’은 미래추측, ‘다’는 평서문 종결 기능을 나타낸다. 하나의 형태에 하나의 문법, 의미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행위가 언제 일어났는지, 그리고 행위가 어떤 양태로 일어났는지를 나타내는 표현방법을 말한다.⁷ 모든 언어 표현이 ‘명제 + a’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어에서는 ‘시제(tense), 상(aspect), 양태(modality)’가 복합적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시제’는 시간의 선후 관계로 현재, 과거, 미래로 나뉘지며, ‘상’은 사건의 내적 문법 기능을 말하며, 화자가 말하는 때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난다고 하여 ‘동작상(진행, 완료, 등)’으로 표현되며, 흔히 ‘-어’나 ‘-고’에 보조 용언이 붙어 실현된다. ‘양태’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능, 예정, 추측, 의문, 의지, 당위, 등)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시상 개념은 시제와 동작상 범주, 그리고 ‘-었’, ‘-겠’ 등으로 표현되는 양태 선어말어미를 포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⁸ 또한 시상 표현은 ‘내일, 작년, 벌써, 빨리, 등’ 시간 명사 및 시간 부사, 그리고 ‘-ㄴ 때, -기 전에, 등’ 기타 관용적 시간 표현 등이 붙어서 실현되거나 의미가 강화된다.

중국어 모어 학습자가 한국어 시제 표현을 힘들어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항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관심을 두는 중국인의 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⁹ 즉 중국어에서의 시간 표현은 동작상, 즉 동작의 상태 의미가 강하다. 중국어의 대표 동작상은 진행, 지속, 완료, 경험, 미래 등 5 가지 상태로 나뉘지며, 여기에 시간명사나 시간부사를 붙여 시간(시상)을 표현한다.¹⁰ 주의해야 할 것은 중국어에서 동작의

⁷ 김종록(2008), 『외국인을 위한 표준 한국어 문법』, 박이정, p. 285.

⁸ 종결어미로 표현되는 서법은 양태 표현의 일부를 담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구분되는 개념을 말하자면, 청자와 관련된 화자의 태도, 예를 들면, 명령, 청유, 허락, 약속 등은 서법으로 다루어지며, 청자와 관련되지 않은 일과 사건 자체에 대한 화자의 태도, 즉, 추측, 의지, 가능성 등은 양태로 다루어진다.

⁹ 염광호(2004), 「한국어 시제 교수에서의 문법 오류 분석」,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V』, p. 503.

¹⁰ 노재은(2001),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시간 표현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9. 부분을 참고하였음.

중국어의 5 가지 동작 상태

동작 상태	형태	의미 기능
진행	예: 學生正在上課呢. 기본 형태: 주어-狀(正,在,正在)-謂(동사)-(賓)-‘呢’.	시간부사 혹은 시간명사, 그리고 詞組를 사용하여 현재, 과거, 미래 등을 표시한다.
지속	예: 學生抱着很大的希望. 기본 형태: 주어-謂(동사)-‘着’-(賓).	상동
완성	예: 他結婚了. 기본 형태: 주어-謂(동사)-‘了’-(賓).	상동
미래	예: 他要結婚了. 기본 형태: 주어-‘要’-謂(동사)-(賓)-‘了’.	일반적으로 미래에 사용

상태는 시제와 관계가 있으나 시제를 직접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今天老師在學校等我們.”은 한국어로 “오늘 선생님은 학교에서 우리들을 기다린다.”, “오늘 선생님은 학교에서 우리들을 기다렸다.”, “오늘 선생님은 학교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선생님은 학교에서 우리들을 기다릴 것이다.” 등 ‘현재’, ‘과거’, ‘현재진행’, ‘미래’로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明天我吃過中餐就去找你”, “下禮拜三下了課就去找你.”,

“上禮拜三去找你的時候, 你正忙着做家事.” 여기에서, ‘明天’이지만 과거형 ‘過’를 사용하고 ‘下禮拜’를 쓰지만 과거완료형 ‘了’, ‘上禮拜’에 진행형 ‘着’사용하고 있다. 시제 표현에서 과거, 미래 표현이 서로 뒤 바뀌지만, 상대방은 발화자가 말하려고 하는 ‘행위의 완료’ 여부를 정확히 알아 듣는다.

고립어인 중국어에서는 시간명사나 시간부사, 그리고 동태조사(動態助詞) 등을 사용해서 시상을 나타내지만¹¹ 시상 의미를 더 뚜렷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나 절(詞組)의 문맥에 의존한다. 한국어 시상 범주도 어떤 면에서는 시제보다는 상적 의미가 더 중시된다고 할 수 있다. 뒤 논문 본론에서 다시 언급이 되겠지만, 한국어도 ‘현재, 과거, 미래’ 등 행위가 일어나는 시간을 중시하기보다는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 혹은 그 행위에 대한 ‘태도’ 등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한국어 시상 표현은 중국어에 비해 다양한 용언 형태 변화로 시제와 상적 의미를 구분해야 하는 복잡함이 더 첨가되어 문법상의 오류 발생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는 상적인 의미와 시제를 모두 가지는 ‘-아/어 있다’와 ‘-고 있다’가 있고, 따로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있다. 또한 ‘행동의 완료 여부’로 시상 표현의 기준을 두고 있는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대만 학생들이 한국어 시상 개념 중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한국어의 절대적 시제와 상대적 시제 개념이다. 한국어 시상은 시간 표현이 서술어 종결형에서 정확하게 나타나지만 문장 안에서 또 하나의 상대적 시간이 엄연히 존재한다. 한국어 시간 관념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절대적 시제가 있으며, 그것은 용언의 종결형에 나타난다. 반면, 상대적 시제는 전체 문장의 사건시에 기대어 상대적으로 결정되며, 그것은 주로 관형사형과 연결형에 나타나게 된다.

과거 경험	예: 他結過婚. 기본 형태: 주어- 謂(동사)-‘過’-(賓).	일반적으로 과거에 사용
-------	--	--------------

¹¹ 중국어 시간 명사: 年, 月, 日, 早上, 春天, 등
 중국어 시간 부사: 才, 就, 剛, 已經, 常常, 正在, 등
 중국어 動態助詞: 了, 着, 過, 등 (‘着’를 靜態助詞로 구분하기도 함)
 중국어 語氣助詞: 嗎, 呢, 吧, 了, 啊, 등

본 논문 연구는 대만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이 시도될 것이며, 그 논의의 범위가 되는 한국어 시상(時相)을 일괄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표 1. 시제 범주

시간	형태	의미 기능
현재	-는/-ㄴ/-∅	1) 현재 사실 (동작/상태/느낌) 2) 현재 진행 3) 현재 습관 4) 사물의 속성/성격 5) 보편적 사실/진리 6) 예정된 미래 행위 7) 과거 사실에 대한 생생한 묘사
과거	-었/았/였	1) 과거 사실 (상태/느낌) 2) 과거 특정 시점 행위 3)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 4) 相적 '완료' 의미 (현재완료/과거완료) 5) 과거 진행 6) 과거 습관
	○ '과거'의 의미를 지닌 시간부사어: 아까, 방금, 지난 달/해, 작년 등	1) 과거시제 강조
	○ '-더'	1) 과거의 경험 회상
	○ '-곤'	1) 과거 반복/습관
	○ '-적'	1) 과거 경험
	○ '-었었', '있더', '있겠' 등	1) 선행요소 '었': '과거시제' 후행요소: '양태' [예] '-있겠': 과거 추측 '-있더': 과거 회상 '-있으리': 과거 추측

		‘-었겠더’:과거 추측, 과거 회상 ‘-었었겠/-었었으리’:과거의 경험 추측
미래	-겠, -ㄴ 것	1) 미래 행위 2) 의도(주어가 1 인칭, 서술어가 동사) 3) 추측/예정/가능성(주어가 3 인칭/사물) 4) 화자의 강한 의지:-겠
	○ '겠더'	1) 미래의 추측/회상

표 2. 동작상 범주

시간	형태	의미 기능
현재완료	○-아/어 있다, ○-아/어 오다, ○-아/어 버리다 ○-아 있겠다 ○-어 지다 ○-어 보다 ○-부터(지금까지) ...고 있다, ○-부터(지금까지) ...-아 오고/가고 있다, ○-아/어 있는 중이다, 등	과거에서 현재까지 동작 계속 혹은 완료
과거진행	○-고 있었다 ○-는 중이었다, ○-는 가운데 있었다, 등	과거 동작 진행(동사 한정)
과거완료	○-아/어 있었다, ○-아/어 왔다 ○-부터(지금까지) ...고 있었다, ○-부터(지금까지) ...-아 오고/가고 있었다, ○ -아/어 있는 중이었다, 등	과거에서 과거까지 동작 계속/완료
미래진행	○-고 있겠다 ○-고 있으리라 ○-고 있을 것이다, 등	미래 동사 진행(동사 한정) (화자의 추측)

표 3. 절대적/상대적 시제

시제	형태	의미 기능
절대적 시제	문장 서술어 종결형 [예] -는/-ㄴ/-∅ (-다) (현재) -였/았/였 (-다) (과거)	화자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 과거, 미래

	-겠, -ㄹ 것 (-다) (미래)	
상대적 시제	문장 속 관형사형, 연결형 [예] -는/ㄴ -을/ㄹ -서, -고	전체 문장의 사건시를 중심으로 상대적 기준

3. 대만 학습자 오류 문제

3-1. 현재시제 오류

현재시제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간 표현이다. 동사의 종결형은 선어말어미 ‘ㄴ/는’으로, 형용사와 서술격조사 ‘이다’에서는 ‘-∅’로 나타나는 데, 기본적인 문법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 (1) 가. 한국사람은 매일 김치를 먹다(먹는다).
 나. 한국 여자 대학생이 화장 많아서 예쁘다(예쁘다).
 다. 한국생활에서 한국친구는 필요한다(필요하다).
 라. 나는 현재 반대 입장이다(이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는 서술형 시제 어미 규칙을 관형사형 시제 어미에 적용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과잉일반화(overgeneralization) 현상으로 볼 수 있다.¹²

- (2) 가. 한국은 위대한 국가이는(인) 것 같습니다.
 나. 중요하는(한) 일이 있어 먼저 집에 가겠습니다.
 다. 예쁘는(예쁜) 친구를 좋아했습니다.
 라. 항상 과일을 사서 친구가 오는(을) 때 같이 먹어요.

한국어 시간 표현의 한 특색으로 현재형이 미래형과 진행형을 나타낸다. 진행상은 사건 미완성의 뜻을 포함한다. 진행상과 완료상은 동사로만 만들 수 있다.

¹² 과잉일반화(overgeneralization) 현상이란 목표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목표언어에 내재된 문법 원칙을 과도하게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목표언어 간섭(언어 내적 전이)의 전형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 (3) 가. 7 월에 여름방학이 되겠다(된다).
 나. 내일 날씨가 흐리다(흐리겠다).
 다. 친구는 예쁘고 있습니다(예뻐지고 있습니다).
 라. 그는 다음 달에 한국에 가겠습니다(갑니다).

(3-가)에서는 시제가 미래시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겠’의 미래 추측 형식으로 썼다. 즉 한국어 시제 표현에서 확실한 미래를 나타낼 때 현재형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3-나)는 상대성 용언인 형용사 중 날씨에 관한 예보는 현재형으로 미래 의미를 나타낼 수 없으며, 언제나 ‘-겠’으로 객관적 추측을 나타내야 한다. (3-다)에서 형용사로 진행형을 쓸 수 없으며, 진행형으로 쓰기 위해서는 ‘형용사 + 지다’ 형태로 바꾸어야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다. (3-라)에서는 동사 현재형이 예정된 미래를 나타낸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외국인 학생들은 ‘미래’에 관한 서술이라면 무조건 ‘-르 것’을 쓰는 경향이 있다. 물론, 문법상으로 틀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좋은 문장이 나오려면 한국어 현재형에 내재된 ‘상적’ 의미를 안다면 고급 한국어를 쓸 수 있을 것이다.¹³

아래 예들은 현재진행형과 현재완료형에서의 오류들이다.

- (4) 가. 저는 학교에 간(가는) 중이었습니다.
 나. 친구는 현재 한국 숙명여자대학교에 교환학생을 가서(가) 있다.
 다. 아픈 강아지가 살아 있는 중입니다(있습니다).
 라. 작년부터 저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바쁘고 있습니다(바쁩니다).

(4-가)는 진행을 나타내는 관용구로 서술어 과거형에 일치를 시킴으로써 오류가 발생했다. (4-나)는 동작의 지속을 나타내는 현재완료형으로 보조용언이 붙는 ‘아/어 있다’ 형태인데, 연결어미 ‘-서’를 사용했다. (4-다)에서 ‘살다’에서 ‘거주하다’ 의미의 동작성 동사는 현재진행형이 가능하나 ‘생명이 있다’ 의미의 존재성 동사일 경우 현재완료형 지속을 나타내는 ‘-아 있다’ 를 사용하여야 한다.¹⁴ (4-라)에서

¹³ [예]

- 1) 저는 내년에 한국에 갑니다.(1 인칭 화자의 미래 의지)
- 2) 한국어를 잘하면 반드시 성공한다.(주관적인 미래 추측)
- 3) 친구는 내년에 결혼한다.(확신하는 미래 추측)
- 4) 다음 달은 졸업식이 있다.(예정된 미래)
- 5) 가을이 되면 햇살이 나옵니다.(자연 순리의 미래)

¹⁴서정수(1990), 『국어문법의 연구』, 한국문화사, p.61. 용언에서 나타나는 시상법 개념

보면, 애매한 한국어 시상 개념이 돋보인다. 즉 한국어 선어말어미 ‘-는/ㄴ’은 시제적 의미로 현재의 사실을 말하지만, 동시에 상적 의미로 ‘현재진행’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다만 형용사는 진행형을 사용할 수 없다.

현재시제를 ‘시상’ 개념으로 정리한다면,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기본 형태인 선어말어미 ‘는/ㄴ’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심지어 과거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가장 보편적인 의미 기능은 ‘현재’ + ‘진행’, ‘미래’ + ‘진행’ 형태이다.¹⁵

3-2. 과거시제 오류

대만 학습자들이 과거시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과거시제 속의 현재시제’이다. 시제 호응 표현에 있어서 비교적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한국어 속에 내재된 절대적 시간과 상대적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제 호응의 문제는 한국어 문장 속에서 관형형과 연결형에서 흔히 발견된다. 특히 과거시제 속의 현재시제 문제는 대만 학습자를 비롯한 많은 외국인 학습자를 혼동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는 과거시제 속에서 미완료 상황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다.

(5) 가. 걸은(걷는) 것이 싫어 택시를 탔어요.

나. 해수욕장에는 수영을 했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 극장에서 재미있게 웃은(웃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라. 도시락을 먹고 있은(있는) 학생들이 몇 명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5) 예들은 관형사형 속에 나타난 부적절한 시제 호응, 특히 상대적 시간에 관계된 오류들이다. 즉 서술어 종결형이 과거시제이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표현되는 관형형들이 모두 시제의 일치를 시켜야 한다는 관념에서 생긴 오류들이다. 여기서 서술어의 과거형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시제를 나타낸다. 그러나, 관형형에서의 시제는 ‘과거에 있어서의 현재’ 시제로서 상대적 시제를 나타내므로, 현재형으로

참고할 것.

¹⁵ ‘현재 + 진행’: 엄마는 지금 간다.

‘미래 + 진행’: 엄마는 내일 간다.

*‘과거 + 진행’: 이순신 장군은 애간장을 다 태웁니다. (과거 사실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 서술어 현재형을 쓴다. 보통 상황에서는 비교적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표현된다.¹⁶

(6) 가. 저는 한국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서(생각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나. 한국을 좋아했서(좋아해서) 한국어과에 입학했습니다.

다. 아침밥을 먹었고(먹고) 학교에 갔습니다.

라. 운동을 했고서(하고서) 숙제를 합니다.

위의 (6)의 예들은 연결형에 나타난 상대적 시간의 문제들이다. 관형사형과 마찬가지로 연결형에서도 외국인 학습자는 주 문장에서의 서술어 종결형에서의 과거시제와 호응하여야 안심한다.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시간(현재, 과거, 미래) 중에 시제 오류가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관형형과 연결형에서는 과거에 있어서의 현재, 미래에 있어서의 현재를 나타내는 상대적 시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간략하여 설명하면, 선행절 속에 나타나는 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 시간, 즉 과거에서의 현재, 혹은 후행절 시간보다 선행하는 시간으로 현재형 제약이라는 일종의 공기제약을 받는다. 특히 연결어미 ‘-아/어서’, ‘-고서’, ‘-고’ 등은 선행절의 상대적 시간이 후행절의 시간보다 선행하면서 과거에서의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대표적 연결어미이다.

(7) 가. 원빈은 잘 생긴다(생겼다).

나. 남자친구는 못나다(못났다).

다. 저는 약점을 가집니다(가졌습니다).

라. 한국음식이 맛있어서 살이 많이 쪘다(쪘다).

위의 (7) 예들은 특정 형용사에 결합되어 현재의 상태나 사실을 나타낼 때 과거형으로 완료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모든 형용사가 그런 것이 아니고, ‘생기다, 닳다, 늙다, (몸이) 마르다, 살이 (쪘다), 낡다, 멀다, 등’에서 나타난다.

(8) 가. 시험 공부 안 했는데, 틀림없이 낙제한다(낙제했다).

나. 이렇게 돈을 물 쓰듯하니 망한다(망했다).

다. 내일 수업이 끝날(난) 다음에 너희 집에 갈 것이다.

라. 밥을 먹는(을) 때 전화가 왔었다.

¹⁶서술어가 현재 혹은 미래시제일 때 관형사형에서의 시제 일치는 자연스럽다.

[예]

지금은 돈 걱정없이 사는 세상입니다.

미래는 돈 걱정없이 사는(살) 세상이 될 것입니다.

특히 (8) 예들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는 ‘과거미완료’ 표현에 대하여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8-가)와 (8-나)에서 ‘-았/었’은 단순히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아니라 화자가 그 명제 상황이 일어나고 있거나 혹은 일어날 것으로 ‘확신’하는 경우로, 과거시제 기본 형태 ‘-았/었’로 현재시제를 대신하고 있다. (8-다)와 (8-라)는 관용적 표현으로 ‘-은/니 다음’, ‘-을/르’ 때로 문장의 서술어 시제와 독립되어 사용되고 있다.

과거시제를 정리하면, 기본 형태 ‘-았/었’은 과거시제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일에도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발화자가 현재 또는 미래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에서 행위 완료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¹⁷ 그리고, ‘행위 완료 여부’ 중심으로 한국어 시상 표현을 접근하는 대만 학습자에게 ‘과거시제 속의 현재’를 사용해야 하는 상대적 시제 개념에서 오류가 많이 생긴다.

3-3. 미래시제 오류

미래시제는 선어말어미 ‘-겠’과 ‘-르 것’에 의해 표현된다. 또한 관형사형 어미 ‘-르’로 표현된다. ‘-겠’이 추측의 뜻을 나타낼 때는 시간, 인칭, 용언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쓰인다. 다만, ‘-겠’은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추측을 나타내고, ‘-르 것’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측을 하는 것이다. ‘-겠’이 강한 의지 혹은 강한 의도를 표현할 때 반드시 화자가 1 인칭이라는 제약이 따른다. ‘-르 것’은 일반적인 미래 사실을 말할 뿐 다른 의미의 양태성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

- (9) 가. 아버지가 반드시 저를 한국에 보내시겠습니다
 (보낼 것입니다).
 나. 20년 후에 아마 저는 이미 한국어 교사가 됐습니다
 (됐을 것입니다).
 다. 내년에도 눈이 많은 한국 겨울은 아름답겠습니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라. 도둑질을 하면 경찰서에 가겠습니다
 (경찰서에 갑니다).
 마. 네, 잘 알니다(알겠습니다).

¹⁷ ‘현재 + 확신’: 지금 집에서는 난리났다.

‘미래 + 확신’: 한국어과를 나왔지만 실력이 없어 취직은 틀렸다.

(9-가)는 강한 의지 표현을 나타내는 ‘-겠’으로 1 인칭 제약을 받는다. 1 인칭 제약을 받는 ‘의지’의 ‘-겠’을 3 인칭에 사용하는 오류가 가장 흔히 발견된다. (9-나)는 ‘행위의 완료’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 ‘이미’가 나왔어도 미래완료시제를 써야 한다. ‘행위의 완료 여부’에 관심을 두는 중국어 사고 방식이면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9-다)는 사물에 대한 단순 추측을 나타낸다. (9-라)는 상식적인 관행성 결과를 나타낼 때 ‘-겠’을 못쓴다.¹⁸ (9-마)는 겸양의 표현으로 ‘-겠’을 관용적으로 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오류가 발생한다.

- (10) 가.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수업이 끝날 것이라고
 (났겠지라고) 생각하고 학교에 가지 않았다.
 나. 나는 지금 피곤해서 죽을 것이다(죽겠다).
 다. 5년 후에는 우리 모두 결혼할 것이지(했겠지).
 라. 비행기가 지금 도착한다(도착했겠다).

위의 (10) 예들은 미래 시제 ‘-겠’ 혹은 ‘-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두루 사용되는 것들로 외국인 학습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시상 범주 표현들이다. 즉 단순한 ‘미래’시제 의미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서의 ‘의지’나 ‘추측’을 표현한다.

미래시제를 정리하면, 외국인 학습자는 ‘-겠’과 ‘-을/르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된다. 가장 흔한 오류는 1 인칭 의지를 나타내는 ‘-겠’을 3 인칭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추측을 나타내는 ‘-겠’ 혹은 ‘-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두루 나타나는 경우에서이다.¹⁹

3-4. 기타 관용 시상 표현 오류

¹⁸ [가정된 사실에서의 ‘-겠’]

구체적인 일회성

- 1) 비가 오면 학교에 안 가겠습니다.
- 2) 졸업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 3) 울면 도와주지 않겠다.

반복적인 관행성

- 1) 겨울이 오면 눈이 옵니다.
- 2) 감기 들면 목이 쉽니다.
- 3) 사랑을 하면 예뻐집니다.

¹⁹ ‘과거 + 추측’: 벌써 수업이 끝났겠다.

‘현재 + 추측’: 지금 한국 친구는 눈을 보고 있겠다.

‘미래 + 추측’: 내년에는 한국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대만 학습자는 현재 혹은 과거 미완료, 또는 발화시와 일치할 하지 않는 시상 표현에서 많은 어려움과 오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상대적 시제를 가지는 ‘과거시제 속의 현재’ 경우인데, 이밖에도 아래 (11) 예문에서와 같이 한국어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시상 규칙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관용적 표현들을 들 수 있다. 한국어 문법 구조가 완전히 학습이 안된 상황에서 언어 내적 간섭으로 발생하는 과잉일반화 현상으로 일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11) 가. 공부할(한) 후에 극장에 갈 것이다.

나. 엄마가 올(온) 뒤에 전화를 할 께!

다. 머리가 아픈(아플) 정도로 배가 고팠습니다.

라. 한국에 갔(가)기 전까지 한국 문화를 잘 몰랐습니다.

마. 어제 야시장에는 본 것(볼 것, 탈 것, 먹을 것, 구경할 것, 등)이 많았어요.

4. 결론

중국어는 한자 하나 하나에 뜻이 들어 있는 뜻글자인 고립어로 문법적 요소가 비교적 적고, 한국어는 용언의 활용 형태가 많아 비교적 문법적 요소가 복잡하다. 한국어 시상 표현은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대만 한국어 학습자에게 특히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영역이다. 중국어와 비슷하게 한국어에서도 시간 표현은 시제(tense)보다는 상(aspect)적 표현이 중시되어 발달된 언어이다. 다만, 중국어는 행위가 일어나는 시점보다는 그 행위 완료 여부에 관심을 두면, 한국어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 또는 그 행위에 대한 태도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중국어는 행위의 완료 여부에 관심을 둔다. 중국어에서 시상 표현은 시간부사, 시간명사, 동태 혹은 정태조사 그리고 구나 절(詞組)로 의미가 강화된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시간부사, 시간명사는 시제를 더 뚜렷히 표현하기 위한 첨가어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시제 표현은 다양한 문법적 요소를 나타내는 용언의 활용 형태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오류 문제가 더 심각하다.

대만 한국어 학습자 시상 오류 문제를 요약해 보면, 대부분 오류 표현은 한국어 시제(tense) 속에서 상(aspect)과 양태적 의미가 복합적으로 첨가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발생한다. 즉 ‘현재, 과거, 미래’ 등의 행위 ‘시간’보다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 혹은 그 행위에 대한 ‘태도’ 등 의미가 강화되는 관계로 ‘현재, 과거, 미래’ 등의 시제 속에서 나타나는 다른 상적 혹은 양태 의미 기능에 대한 시상 문법 개념 부족, 시상 호응 및 적용 문제, 관용 시상 표현 활용 미숙, 등을 들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현재시제 ‘-는/니’은 현재뿐만 아니라 진행과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과거시제 ‘-었/았’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과거시제 속의 현재’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현재와 과거에도 ‘-었/았’이 쓰이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시제 요소보다는 화자가 그 명제 상황이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하는 태도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미래시제도 마찬가지이다. ‘-겠’이 과거, 현재, 미래에 두루 쓰이고 있으며, 단순한 미래시제가 아니라, 의지, 추측, 등의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양안을 통해 중국어 모어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논문의 내용이 중국어 모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교재 및 학습 활동을 개발하려거나, 오류 문제를 더 깊이 연구하려는 학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고영근·남기심(1998), 『표준국어문법론』, 탐출판사.
- 김종록(2008), 『외국인을 위한 표준한국어문법』, 박이정.
- 노재은(2001),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시간 표현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자(2001),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오류 분석」, 『국제학술대회』, no.6.
- 서정수(1990), 『국어문법의 연구』, 한국문화사.
- 송화연(2002), 「현대 중국어 시제 구조와 의미」, 『중국학논총』, 한국중국문화학회, vol. 14.
- 이종철(2002), 『우리말의 화용적 양상과 지도 방법』, 박이정.
- 이정희(2003),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 박이정.
- 염광호(2004), 「한국어 시제 교수에서의 문법 오류 분석」, 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학연구소,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V』, 태학사.
- 王 芳(2006), 「한국어와 중국어 시제의 대조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rown, H. D.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Fourth edition, Addison Wesley Longman.